

CKP 회계법인 한국진출

FTA 발효 후 첫 개소 외국계 회사 기록
최기호·김훈 공동대표

입력일자: 2014-02-27 (목)

LA 한인타운에 메인 오피스를 둔 한인운영 'CKP 회계법인'(공동대표 최기호·김훈이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외국계 회계법인으로는 최초로 한국에 진출했다.

최 CKP 공동대표는 26일 “한미 FTA 시행 후 미국 법무법인들의 한국 진출은 원활히 이루어졌지만 미국 회계법인들은 2016년까지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여러 진입 장벽에 막혀 한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”며 “현재 외국계 회계법인에 허용되는 서비스가 미국 조세와 국제 조세인 관계로 약 3주 전 서울 삼성동에 여덟 번째 사무소를 개설하고 첫 프로젝트로 한국 거주 미국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‘해외 금융계좌 신고법’(FBAR)에 대한 컨설팅과 과거 FBAR 불이행에 대한 정리를 돕는 업무를 보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외국계 회계법인의 외국세법 자문 사무소 설립요건은 5명의 외국세법 자문사가 등록해야 하며 이 중 3명은 연중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.

CKP는 지난달 개소한 서울사무실을 비롯해 LA, 어바인, 샌디에고, 샌마테오, 앨라배마, 뉴저지 등 모두 8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텍사스주에 아홉 번째 사무소를 오픈할 계획이다. 파트너 7명에 CPA 70명이 소속돼 있으며 미국에서 아시아계로는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이다.

최 공동대표는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학연구소, 한인타운 청소년회관(KYCC) 등 여러 비영리기관 지원활동을 벌여왔다.

서울사무소 책임 파트너를 맡은 김 공동대표는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의 근간이 되는 한국 외교통상부 한미 FTA 서비스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CKP 한국 진출 기반을 다졌다.

<구성훈 기자>



▲ 2012년 3월 한미 FTA 시행 이후 외국계 회계법인 중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'CKP 회계법인' 최기호(오른쪽)·김훈 공동대표.